

2021 년 6 월 18 일

교구 여러분께

대주교 마에다만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조치 (제 13 차)

+주님의 평화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사제·수도자·신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하느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은 어느정도 막았지만 아직도 백신의 보급 등에 의한 종식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교회에 모두가 모이는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오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자숙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일본 사회 전체가 추진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에 우리 교회도 맞추어 나가도록 합시다.

오사카 부, 효고 현에 발령되었던 긴급사태 선언은 6 월 21 일부터 해제되고, 이어서 만연 방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관계 지자체의 지침이 발표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에 따라 주십시오.

오사카교구에서는 공개미사의 중지를 해제합니다만, 각 성당·수도원·시설에 따라 지역의 사정, 모이는 인원의 규모나 구성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책임자가 사정에 맞추어 공개미사의 형태 등 최종 판단을 해 주십시오.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아래의 대응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지역성당 주일미사에 대하여

a) 기본대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손소독, 마스크 착용, 환기, 연락처 파악, 노래하지 않기, 발성을 가급적 자제하고 가능하면 2 미터 적어도 1 미터의 거리를 두고 앉기 등에 더해 입당시에 체온을 측정해 주십시오)

b) 미사 주례자나 봉사자도 미사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단, 청각장애인과 노인을 배려하여 설교대가 회중으로부터 2 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설교 중에는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c) 주일 미사에 대한 의무는 교구 내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면제하므로 미사 참석 여부는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성당에서 공개 미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성당의 미사에는 가지 마십시오.

d)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철저히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경우나 각 장소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 미사를 중지해 주십시오(물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데 임원이나 담당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경우 등도 포함). 그럴 경우 사제는 '주일마다...자신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해 미사를 드릴 의무가 있다' (교회법 535 조 제 1 항) 는 교회법령에 따라 성당의 신자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미사를 집전해 주십시오. 또, 주일의 전례의 혜택이 어떠한 형태(온라인 전달이나 통신문 등)로라도 신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궁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e) 각 성당 주일 공개미사를 중지할 경우 책임자인 사제가 블록의 모데라토르, 지구장, 교구 사무국으로 반드시 연락해야 합니다. 교구 사무국에는 이메일로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사카 교구 사무자 정보 [info@osaka.catholic.jp] 에 알려 주십시오.

2. 성당 이외의 수도원이나 시설에서의 미사, 또 성당에서의 평일 미사는 철저히 대책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해도 좋으니 각 책임자가 판단해 주십시오.

3. 미사 이외의 모임이 필요한 경우, 적은 인원으로 제한할 것, 음식을 먹지 않을 것 등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십시오. 누구나가 감염자가 될 가능성, 혹은 이미 감염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동시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한층 배려가 필요한 약한 입장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려 보내도록 하십시오.

이상

* 주요외국어판은 순차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